**(3)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방문 인사 2019.5.12**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한국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의 장로로서 지난 11월부터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이라고 합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께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대신 전합나다.  
  
저는 오늘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만 결코 낯설지 않고 오래 다닌 교회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탁월한 목양역량과 리더십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오신 최목사님과 함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어온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준비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여러분을 섬겨오신 최성은 목사님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셔야 하는 여러분의 아쉬움과 슬픔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분 한분의 심령 기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유해주시도록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면서도 깊이 감사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선교와 목양, 그리고 동역 교회로서 협력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거리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최성은 목사님이라는 다리를 통해 두 교회는 마치 한 교회처럼 동역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받드시 우리의 비전을 우리 모두 앞에 현실로 펼쳐보여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넓은 마음을 헤아려 여려분께서 최성은 목사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최목사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구촌교회의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5월12일   
  
  
지구촌교회 청빙위원장 정진상 드림